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0
----------	------

2019년 12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11.28. 김인제 의원 외 10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9.11.29.

다. 상정 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19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음.
-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2018~2047) 남한은 각각 159.2조원과 4.12조원, 북한은 각각 51.3조원과 17.3조원으로 전망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냄.
- 남북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지난 6월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 되면서 북미 간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임.
-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에 북한 정부가 거부 의사 표명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음.
- 정체된 북미 대화와 북한 정부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다시금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와 협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결의안의 타당성 검토

- 금강산 관광은 한국 민간인이 북한의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는 사업으로 1998년 11월에 시작되어 남·북 분단 50년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아 왔음.
- 그러나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잠정 중단 상태임.
- 한편,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등에 따라 구체화된 이래 남북경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년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3국 간 비핵화 협상 추진, 2018년 9·19 평양공동 선언<sup>1)</sup>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음.

- 그러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미 간 관계도 정체되면서 최근 북한 측은 금강산 남측시설물의 철거를 통보해 왔음. 이에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상황임.
- 이렇듯 최근 정체된 북·미 협상과 북한의 남·북 대화 거부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마중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
- 이에 본 결의안은 남·북 간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남·북 대화 참여와 협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함.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설득도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임.

###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정체 국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남·북을 비롯한 미국 등

1)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원칙의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20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28일

발 의 자 : 김인제, 신원철, 김용석, 서윤기,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권수정 의원  
 (103명)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

## 2. 제안이유

- 남북평화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음.
-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2018~2047) 남한은 각각 159.2조원과 4.12조원, 북한은 각각 51.3조원과 17.3조원으로 전망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나타냄.
- 남북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지난 6월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미 간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임.
-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에 북한 정부가 거부 의사 표명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음.
- 정체된 북미 대화와 북한 정부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다시금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 **3.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 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 이후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절대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남북정상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시작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인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9.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